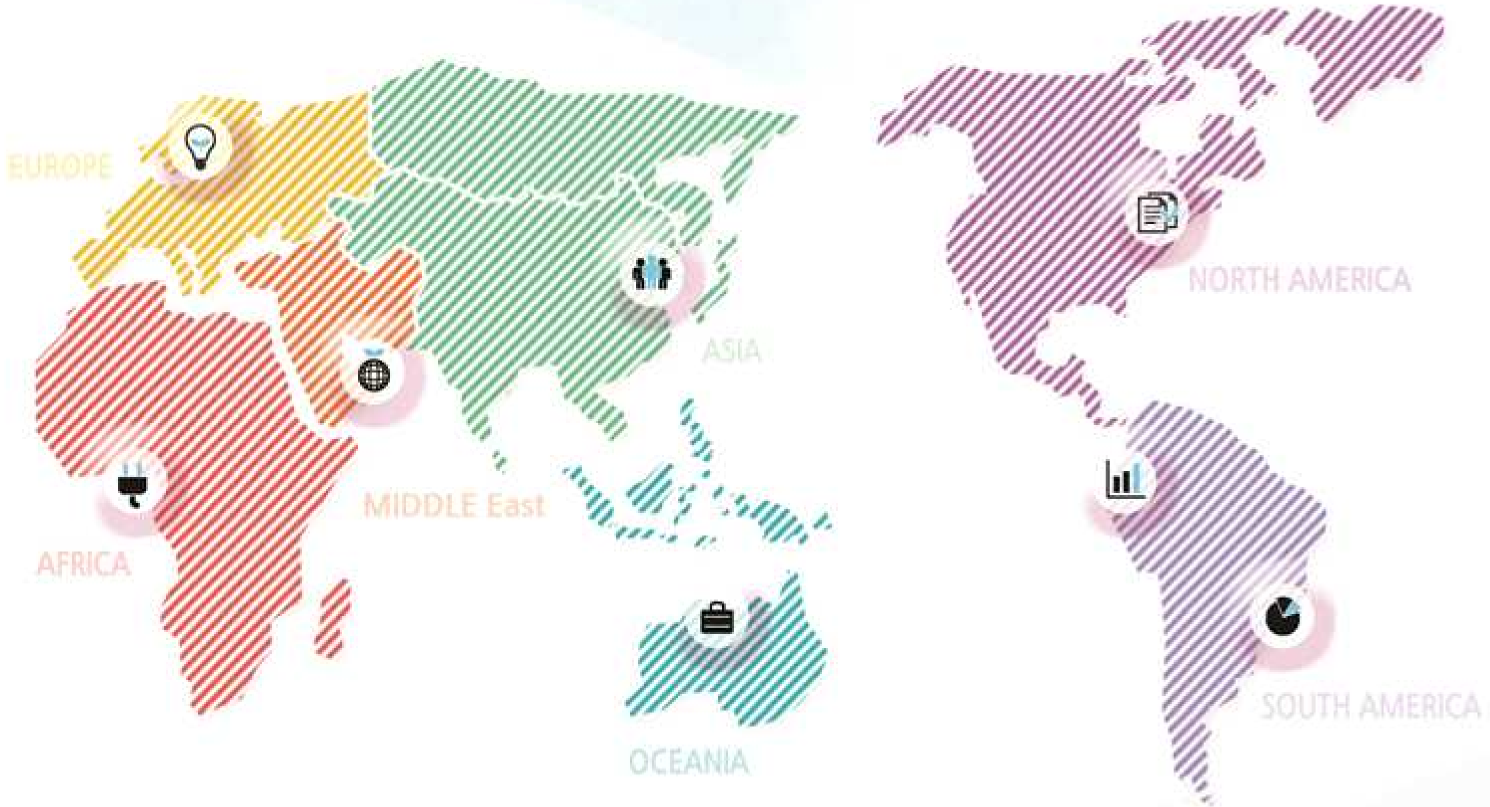
Global Market Report 15-031

2015.08.03



Global Market Report

시장 점유율 분석을 통한

한국 수출시장 재조명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세계 주요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 변화

2 1. 개황
4 2. 지역별 분석
10 3. 품목별 분석

Ⅱ. KOTRA 해외무역관이 본 한국 상품 점유율 전망

13 1. 주요 수입시장별 점유율 전망
15 2. 향후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는 상품
17 3. 향후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는 상품
19 4. 지역별 경쟁국 전망

Ⅲ. 시사점 / 21

요 약

수출 시장 재조명, 선진시장 잡아야 세계시장 잡는다!

주요 수출대상국 50개를 대상으로 과거 10년 동안 우리 상품의 시장 점유율 변화 내용을 분석한 동 보고서는 우리 수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되는 유럽과 북미에서의 점유율 하락 현상이 그것이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과거 10년 동안 0.26%p가 감소한 0.83%로 매우 낮다. 전체 평균인 3.34%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선진국 시장인 북미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10년 전에 비해 0.20%p가 낮아진 2.71%에 머물렀다.

점유율 1위 품목 보유에서도 유럽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14년 기준으로 50개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상품이 80개였는데 유럽에서는 국가 당 1위 품목 보유 숫자가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4.8개 보다 크게 낮은 1.4개에 불과했다.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저조 현상은 향후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속적인 수출 확대, 즉 양적 팽창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선진국 시장인 유럽과 북미 두 지역을 합할 경우 전체 수출에서 25.6%를 차지한다. 결코 무시하지 못할 큰 시장이다. 이 두 지역으로의 수출 부진을 그대로 둔 채 신흥국 시장 확대 전략만으로는 수출 확대에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고부가가치 시장인 선진국 시장에서 멀어짐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상품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질적 저하 현상이 함께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흥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만큼이나 선진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최근 미국 시장에서 한-미 FTA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현상(5년 전에 비해 0.52%p 상승)은 매우 고무적이며, EU 시장에서도 한-EU FTA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FTA 효과에만 기대하기 보다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50개 무역관의 의견을 반영, 현지에서의 우리 상품 점유율 증감을 예상해 보았고, 점유율 상승 혹은 하락 품목 및 지역별로 우리가 경쟁하게 될 경쟁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올 상반기 우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5.0%)으로 감소하면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동 보고서가 수출 부진의 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에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I 세계 주요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 변화

1. 개황

동 보고서는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대상국 중 통계(최종재 기준[1])입수가 가능한 상위 50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수입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것임. 권역별·국가별·품목별 점유율 분석을 통해 수출시장을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코자 함

□ 세계 주요 수입시장(50개국)에서 점유율 변동 추이

○ 50개 조사대상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수입액은 지난 10년간 2배 증가하였고, 점유율은 0.28%p 증가

– 특히,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5년간 0.32%p의 높은 점유율 증가세 시현

< 세계 주요 수입시장(50개국)의 한국 상품 점유율 변화 >

구분	2004	2009	2014
총 수입액(백만 달러)	8,195,386	10,753,223	15,908,799
한국산 수입액(백만 달러)	250,379	325,066	531,993
한국산 점유율(%)	**3.06%**	**3.02%**	**3.34%**

* 자료 : 각국 통계청 등 수입통계 발표기관, Global Trade Atlas

□ 지역별 수입시장 점유율 동향

○ '14년 현지 수입시장에서 한국 상품 점유율은 아시아·대양주(6.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중동·아프리카(3.1%), CIS(2.9%), 북미·중남미(2.8%), 유럽(0.8%) 순

< 지역별 한국 상품 수입점유율 >

대륙	한국 상품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폭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04→'14)
아시아·대양주	141,566	198,952	349,011	6.60	6.26	**6.41**	△0.19%p
중동·아프리카	6,849	10,772	18,596	2.67	2.75	**3.07**	0.40%p
CIS	2,599	5,809	10,578	2.21	2.37	**2.88**	0.67%p
북미·중남미	60,172	65,156	105,779	2.88	2.67	**2.84**	△0.04%p
유럽	39,193	44,377	48,029	1.09	0.99	**0.83**	△0.26%p
합계	250,379	325,066	531,993	3.06	3.02	**3.34**	0.28%p

* 자료 : 각국 통계청 등 수입통계 발표기관, Global Trade Atlas, TradeMap

1) 각국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난 10년간 점유율 확대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은 CIS(0.67%p)이며,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유럽(△0.26%p)으로 분석

- 50개국 중 23개국에서 점유율이 상승하였고, 27개국에서 점유율이 하락함
  * (상승↑) 23개국 : 중동·아프리카(6) 아시아대양주(5) 북미중남미(6) CIS(2) 유럽(4)
  * (하락↓) 27개국 : 유럽(13) 아시아대양주(8) 북미중남미(4) CIS(1) 중동·아프리카(1)

○ 상승폭이 큰 상위 3개국은 이란(2.9%p), 인도네시아(2.5%p), 카자흐스탄(2.1%p)이며, 하락폭이 큰 하위 3개국은 과테말라(△3.6%p), 대만(△2.0%p), 홍콩(△1.9%p)으로 나타남

< 10년간 한국 상품 점유율 증감 상위 10개국 >

순위	국가	증가(%)			상승폭 ('04→'14)	순위	국가	감소(%)			하락폭 ('04→'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1	이란	5.38	6.22	8.28	2.90%p	1	과테말라	6.03	2.76	2.41	△3.62%p
2	인도네시아	4.18	4.90	6.65	2.47%p	2	대만	7.36	6.04	5.41	△1.95%p
3	카자흐스탄	1.93	1.31	4.00	2.07%p	3	홍콩	6.45	4.90	4.55	△1.89%p
4	싱가포르	4.04	5.71	5.90	1.86%p	4	중국	11.09	10.17	9.69	△1.39%p
5	뉴질랜드	2.86	3.35	4.48	1.62%p	5	스리랑카	3.12	1.77	2.15	△0.97%p
6	필리핀	6.22	6.99	7.82	1.59%p	6	그리스	4.06	5.14	3.15	△0.91%p
7	이집트	1.79	2.76	3.14	1.34%p	7	핀란드	1.07	1.16	0.31	△0.76%p
8	호주	3.49	3.33	4.66	1.17%p	8	일본	4.84	3.98	4.11	△0.73%p
9	브라질	2.75	3.77	3.72	0.97%p	9	스페인	1.17	0.79	0.58	△0.60%p
10	알제리	1.97	2.85	2.79	0.81%p	10	남아공	2.12	1.79	1.55	△0.57%p

* 자료 : 각국 통계청 등 수입통계 발표기관, Global Trade Atlas, TradeMap

□ 주요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동향

○ 주요 50개국 수입시장에서 경쟁국의 점유율을 보면, 지난 10년간 중국이 4.73%p 상승, 일본은 3.22%p 감소, 대만은 0.2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세계 주요 수입시장(50개국) 내 경쟁국 점유율 비교 >

구분	점유율(%)			증감폭 ('04→'14)
	2004	2009	2014	
한국	3.06	3.02	3.34	0.28%p
중국	9.91	14.29	14.64	4.73%p
일본	7.73	5.59	4.51	△3.22%p
대만	2.73	2.23	2.47	△0.25%p

* 자료 : 각국 통계청 등 수입통계 발표기관, Global Trade Atlas, TradeMap

2. 지역별 분석

아시아 · 대양주

□ '14년 기준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아시아·대양주로 6.4%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0년간 0.02%p 감소

○ 아시아·대양주는 지리적 이점으로 한국 상품의 진출이 활발하며, 13개국의 한국 상품 평균 점유율이 5.1%에 달할 정도로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

○ '14년 한국 상품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중국(9.7%),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

– 한국은 '03년 중국의 최대 수입 대상국이 되었으며, '04년 이래 지속

* '15년 1분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10.9%의 점유율을 차지

– 두 번째로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필리핀으로 7.8%를 기록했고, 지난 10년간 1.6%p 증가함. 전통적으로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였으나 '05년 이후 스마트폰과 컴퓨터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핸드폰 등 수입이 증가

– 해당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산 점유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2.5%p('04년 4.2% → '14년 6.7%) 상승함. '00년 초부터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국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우리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 한국 상품 점유율 최하위 국가는 스리랑카(2.2%)로 조사됨

< 아시아·대양주 국가별 한국 상품 점유율 >

국가명		총 수입액(백만 달러)			한국제품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1	중국	560,811	1,003,893	1,963,105	62,166	102,125	190,286	11.09	10.17	9.69
2	필리핀	44,039	43,008	64,523	2,740	3,005	5,043	6.22	6.99	7.82
3	인도네시아	46,525	96,829	178,179	1,943	4,742	11,847	4.18	4.90	6.65
4	싱가폴	173,581	245,785	366,268	7,013	14,030	21,602	4.04	5.71	5.90
5	대만	158,715	174,071	272,973	11,684	10,513	14,762	7.36	6.04	5.41
6	호주	103,686	159,268	227,682	3,614	5,297	10,610	3.49	3.33	4.66
7	말레이시아	105,156	123,575	208,964	5,223	5,694	9,704	4.97	4.61	4.64
8	홍콩	273,361	352,668	600,763	17,622	17,276	27,346	6.45	4.90	4.55
9	뉴질랜드	21,716	24,261	42,508	621	813	1,903	2.86	3.35	4.48
10	일본	455,661	551,787	812,954	22,067	21,977	33,408	4.84	3.98	4.11
11	태국	95,197	134,597	228,274	3,584	5,457	8,563	3.76	4.05	3.75
12	인도	97,313	257,658	460,925	3,044	7,856	13,523	3.13	3.05	2.93
13	스리랑카	7,852	9,432	19,285	245	167	414	3.12	1.77	2.15
소계		2,143,613	3,176,832	5,446,403	141,566	198,952	349,011	6.60	6.26	6.41

중동 · 아프리카

□ '14년 중동·아프리카에서 시장점유율은 3.1%로 10년간 0.4%p 증가

○ 한국 상품 점유율이 가장 높게 조사된 나라는 이란으로 과거 10년 전에 비해 2.9%p가 높은 8.3%를 기록

– '대장금', '주몽' 등 한국 드라마 현지 방영으로 한류 열풍이 점유율 상승에 큰 역할

○ 터키는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의 발효('13.5)에 따라 한국의 對터키 수출이 급증하며 한국의 터키 수입시장 점유율이 2%대에서 3%로 진입

– '96년 터키-EU 관세동맹이 체결로 유럽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가진 터키를 통한 對유럽 수출 증가. 현대자동차, LG전자, 효성,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대기업의 對터키 투자가 확대됨

○ 이집트의 경우, '11년까지 한국 상품의 對이집트 수출이 고속 성장을 보였으며, 한국 기업의 진출 등 양국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함

– 현지 승용차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및 제품 생산기지로 이집트를 활용 중인 삼성전자, LG전자의 시장 확장 등이 점유율 상승에 기여

* '14년 기준 현대자동차의 이집트 시장 점유율 : 21.6%

○ 그밖에 케냐에서는 유럽제품을 선호하던 흐름이 '09년 이후 저렴한 중국산 선호로 바뀌었으나, 중국산(기계류, 건설 중장비 등)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유럽산 대체품으로서의 한국산 선호로 한국 상품 점유율 상승('04년 0.8% → '14년 1.6%)

< 중동·아프리카 국가별 한국 상품 점유율 >

	국가명	총 수입액(백만 달러)			한국제품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1	이란	32,997	49,669	50,066	1,775	3,087	4,146	5.38	6.22	8.28
2	이집트	12,841	44,655	68,188	230	1,233	2,138	1.79	2.76	3.14
3	터키	97,539	140,928	241,780	2,572	3,118	7,536	2.64	2.21	3.12
4	알제리	18,308	39,294	58,330	361	1,120	1,625	1.97	2.85	2.79
5	이스라엘	41,101	42,589	72,329	851	916	1,357	2.07	2.15	1.88
6	*케냐	5,856	9,870	15,269	49	134	244	0.84	1.36	1.60
7	남아공	47,653	64,867	99,871	1,011	1,164	1,550	2.12	1.79	1.55
	소계	256,295	391,872	605,833	6,849	10,772	18,596	2.67	2.75	3.07

* 케냐 : 2014년 1월~10월 통계

CIS

□ CIS 지역 점유율은 '14년 기준 2.9%로 10년 전에 비해 0.7%p 증가

○ 카자흐스탄은 한국 드라마, K-POP 등 각종 한류 엔터테인먼트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과 한국제품(화장품, 자동차 등)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10년간 한국 상품 점유율이 2.1%p 상승함

-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정치 경제계에 깊숙이 진출해 있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산업·문화 분야 등의 교두보 역할을 함

○ 러시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요 상품의 점유율은 지난 3년간 상승했으나 실제 수출 규모는 '13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와 '14년에 본격화된 러시아 경제위기와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12년 이후 하락

-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건설 자재 및 원료 부문과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 대표적인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감소세

< CIS 국가별 한국 상품 점유율 >

국가명		총 수입액(백만 달러)			한국제품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1	카자흐스탄	12,773	28,408	26,904	247	373	1,076	1.93%	1.31%	4.00%
2	러시아	75,569	170,827	285,982	2,026	4,868	9,024	2.68%	2.85%	3.16%
3	우크라이나	28,997	45,423	54,382	326	568	478	1.12%	1.25%	0.88%
소계		117,339	244,658	367,268	2,599	5,809	10,578	2.21%	2.37%	2.88%

북미

□ '14년 기준 북미 지역 점유율은 2.7%로 10년 전에 비해 0.2%p 감소

○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액과 점유율 순위('04년 7위 → '14년 6위)는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 폭 확대로 '12년 이후 지속 개선

- 캐나다의 경우, 중국, 멕시코 등의 추격과 일본, 독일 등과의 경쟁으로 현지 수입시장 점유율 답보 상태 지속

< 북미 국가별 한국 상품 점유율 >

국가명		총 수입액(백만 달러)			한국제품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1	미국	1,469,704	1,599,625	2,345,187	46,168	39,216	69,606	3.14	2.45	2.97
2	캐나다	274,200	321,657	463,156	4,495	5,234	6,566	1.64	1.63	1.42
소계		1,743,904	1,921,282	2,808,343	50,663	44,450	76,172	2.91	2.31	2.71

중남미

□ '14년 기준 중남미 지역 점유율은 3.3%로 10년 전에 비해 0.5%p 증가

○ 브라질의 경우 우리제품의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년 사이 0.4%p 소폭 하락('12년 4.1% → '14년 3.7%)

- 제품의 품질보다는 낮은 가격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브라질에서 가격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중국 상품의 점유율이 10.4%p 증가함

* 세계 주요 수입시장 내 중국산 점유율 변화(%) : ('04)5.9 → ('09)12.5 → ('14)16.3

○ 멕시코에서의 한국 상품 시장 점유율은 최근 10년간 완만한 성장으로 연평균 2.6%를 보였으며, 점유율 순위는 6위에서 4위로 2계단 상승함

- 멕시코에 진출한 삼성, LG 등 대기업의 인지도 개선으로 전자, 기계, 자동차의 3강 품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과테말라에서는 한국 상품 점유율이 지난 10년간 3.6%p의 큰 폭으로 감소

- 저렴한 노동력과 높은 노동 생산력으로 중국은 과테말라의 주요수입국 3위로 성장했는데, 이들과 우리 주력품목(섬유 원자재, 자동차 및 부품)이 경쟁하게 되면서 한국 상품 경쟁력은 감소 추세
- 또한, 세계 원유 가격 상승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 수입량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13년 자동차 수입규제로 자동차 및 부품 역시 큰 폭 감소

○ 그밖에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부의 제조업 보호 정책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제품의 선전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임

< 중남미 국가별 한국 상품 점유율 >

국가명		총 수입액(백만 달러)			한국제품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1	브라질	62,836	127,647	229,060	1,730	4,818	8,526	2.75	3.77	3.72
2	멕시코	196,808	234,384	399,977	5,227	10,946	13,771	2.66	4.67	3.44
3	칠레	22,339	38,401	65,423	696	2,159	2,164	3.12	5.62	3.31
4	에콰도르	7,861	15,090	27,516	272	522	906	3.46	3.46	3.29
5	페루	10,111	21,864	42,346	297	648	1,383	2.94	2.96	3.27
6	과테말라	9,477	11,523	18,278	571	318	440	6.03	2.76	2.41
7	콜롬비아	16,491	32,898	64,029	447	680	1,500	2.71	2.07	2.34
8	아르헨티나	22,445	38,780	65,249	269	615	907	1.20	1.59	1.39
소계		348,368	520,587	911,878	9,509	20,706	29,597	2.73	3.98	3.25

유럽

□ 유럽은 '14년 기준 점유율이 가장 낮은(0.8%) 지역으로 조사대상 17개국 중 12개국에서 점유율이 1% 미만에 머물렀고, 10년간 0.3%p 감소

○ 지난 10년간 유럽 내 한국 상품 점유율이 가장 높은 그리스는 해운업과 관광업은 강하지만 제조업 기반이 약해 대다수 소비재, 공산품(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한국 상품에 대한 잠재 수요가 큼

* 그리스 현지 수입시장의 약 86%를 차지하는 선박의 불·호황이 우리 수출을 크게 좌우함

○ 독일은 EU 역내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전체에서 65.5%('14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한국 상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물류, 창고, 빠른 납기 요구, A/S 등에서 시장 진출에 어려움 존재

○ 유럽 국가들은 동유럽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역내 교역을 증가시켰으며, 중국 등 경쟁국들도 동유럽을 생산기지로 활용함에 따라 유럽시장에서 한국산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 벨기에의 경우 상위 10대 수입국 중 무려 7개국이 EU 회원국으로 '14년 기준으로 이들 7개국과의 교역 비중은 57.35%를 기록함

– 영국의 경우, 우리 주력 기업들의 중국·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 타이어 등 수입규모가 큰 품목의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점유율 하락

< 유럽 국가별 한국 상품 점유율 >

국가명		총 수입액(백만 달러)			한국제품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1	그리스	52,810	67,192	63,437	2,144	3,456	1,996	4.06	5.14	3.15
2	덴마크	68,140	83,041	99,203	1,062	493	2,078	1.56	0.59	2.09
3	폴란드	89,587	149,718	219,883	761	3,660	3,389	0.85	2.44	1.54
4	체코	68,245	105,255	152,259	562	1,405	2,119	0.82	1.33	1.39
5	헝가리	60,249	77,272	104,908	903	2,029	1,204	1.50	2.63	1.15
6	영국	466,784	514,217	689,612	5,514	3,868	6,262	1.18	0.75	0.91
7	독일	718,150	926,478	1,218,043	9,521	10,875	10,621	1.33	1.17	0.87
8	네덜란드	319,724	443,547	587,723	3,130	3,183	4,871	0.98	0.72	0.83
9	루마니아	32,664	54,344	77,735	357	502	620	1.09	0.92	0.80
10	이탈리아	355,267	414,784	471,180	3,963	3,009	3,109	1.12	0.73	0.66
11	벨기에	285,565	354,786	451,187	1,529	2,321	2,796	0.54	0.65	0.62
12	프랑스	434,242	540,502	660,910	3,896	4,400	4,043	0.90	0.81	0.61
13	오스트리아	113,353	136,333	172,427	857	718	1,027	0.76	0.53	0.60
14	스페인	258,311	293,599	358,433	3,032	2,329	2,074	1.17	0.79	0.58
15	스웨덴	100,431	120,099	162,418	934	1,041	903	0.93	0.87	0.56
16	스위스	111,777	155,995	203,154	489	382	679	0.44	0.24	0.33
17	핀란드	50,568	60,830	76,562	539	706	238	1.07	1.16	0.31
소계		3,585,867	4,497,992	5,769,074	39,193	44,377	48,029	1.09	0.99	0.83

< 세계 주요 수입시장(50개국) 내 한국산 점유율 변화(장기)>

대륙	국가명		총 수입액(백만달러)			한국제품 수입액(백만달러)			점유율			증감폭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04→'14)
아시아 대양주	1	중국	560,811	1,003,893	1,963,105	62,166	102,125	190,286	11.09%	10.17%	9.69%	△1.39%p
	2	일본	455,661	551,787	812,954	22,067	21,977	33,408	4.84%	3.98%	4.11%	△0.73%p
	3	홍콩	273,361	352,668	600,763	17,622	17,276	27,346	6.45%	4.90%	4.55%	△1.89%p
	4	싱가폴	173,581	245,785	366,268	7,013	14,030	21,602	4.04%	5.71%	5.90%	1.86%p
	5	대만	158,715	174,071	272,973	11,684	10,513	14,762	7.36%	6.04%	5.41%	△1.95%p
	6	인도	97,313	257,658	460,925	3,044	7,856	13,523	3.13%	3.05%	2.93%	△0.19%p
	7	인도네시아	46,525	96,829	178,179	1,943	4,742	11,847	4.18%	4.90%	6.65%	2.47%p
	8	호주	103,686	159,268	227,682	3,614	5,297	10,610	3.49%	3.33%	4.66%	1.17%p
	9	필리핀	44,039	43,008	64,523	2,740	3,005	5,043	6.22%	6.99%	7.82%	1.59%p
	10	태국	95,197	134,597	228,274	3,584	5,457	8,563	3.76%	4.05%	3.75%	△0.01%p
	11	말레이시아	105,156	123,575	208,964	5,223	5,694	9,704	4.97%	4.61%	4.64%	△0.32%p
	12	뉴질랜드	21,716	24,261	42,508	621	813	1,903	2.86%	3.35%	4.48%	1.62%p
	13	스리랑카	7,852	9,432	19,285	245	167	414	3.12%	1.77%	2.15%	△0.97%p
	소계		2,143,613	3,176,832	5,446,403	141,566	198,952	349,011	6.60%	6.26%	6.41%	△0.20%p
북미 중남미	14	미국	1,469,704	1,599,625	2,345,187	46,168	39,216	69,606	3.14%	2.45%	2.97%	△0.17%p
	15	멕시코	196,808	234,384	399,977	5,227	10,946	13,771	2.66%	4.67%	3.44%	0.79%p
	16	브라질	62,836	127,647	229,060	1,730	4,818	8,526	2.75%	3.77%	3.72%	0.97%p
	17	캐나다	274,200	321,657	463,156	4,495	5,234	6,566	1.64%	1.63%	1.42%	△0.22%p
	18	칠레	22,339	38,401	65,423	696	2,159	2,164	3.12%	5.62%	3.31%	0.19%p
	19	콜롬비아	16,491	32,898	64,029	447	680	1,500	2.71%	2.07%	2.34%	△0.37%p
	20	페루	10,111	21,864	42,346	297	648	1,383	2.94%	2.96%	3.27%	0.33%p
	21	에콰도르	7,861	15,090	27,516	272	522	906	3.46%	3.46%	3.29%	△0.17%p
	22	아르헨티나	22,445	38,780	65,249	269	615	907	1.20%	1.59%	1.39%	0.19%p
	23	과테말라	9,477	11,523	18,278	571	318	440	6.03%	2.76%	2.41%	△3.62%p
	소계		2,092,272	2,441,869	3,720,221	60,172	65,156	105,779	2.88%	2.67%	2.84%	△0.03%p
중동 아프리카	24	터키	97,539	140,928	241,780	2,572	3,118	7,536	2.64%	2.21%	3.12%	0.48%p
	25	이란	32,997	49,669	50,066	1,775	3,087	4,146	5.38%	6.22%	8.28%	2.90%p
	26	이집트	12,841	44,655	68,188	230	1,233	2,138	1.79%	2.76%	3.14%	1.34%p
	27	남아공	47,653	64,867	99,871	1,011	1,164	1,550	2.12%	1.79%	1.55%	△0.57%p
	28	알제리	18,308	39,294	58,330	361	1,120	1,625	1.97%	2.85%	2.79%	0.82%p
	29	이스라엘	41,101	42,589	72,329	851	916	1,357	2.07%	2.15%	1.88%	0.19%p
	30	*케냐	5,856	9,870	15,269	49	134	244	0.84%	1.36%	1.60%	0.80%p
	소계		256,295	391,872	605,833	6,849	10,772	18,596	2.67%	2.75%	3.07%	0.40%p
유럽	31	독일	718,150	926,478	1,218,043	9,521	10,875	10,621	1.33%	1.17%	0.87%	△0.45%p
	32	영국	466,784	514,217	689,612	5,514	3,868	6,262	1.18%	0.75%	0.91%	△0.27%p
	33	네덜란드	319,724	443,547	587,723	3,130	3,183	4,871	0.98%	0.72%	0.83%	△0.15%p
	34	이탈리아	355,267	414,784	471,180	3,963	3,009	3,109	1.12%	0.73%	0.66%	△0.46%p
	35	프랑스	434,242	540,502	660,910	3,896	4,400	4,043	0.90%	0.81%	0.61%	△0.29%p
	36	벨기에	285,565	354,786	451,187	1,529	2,321	2,796	0.54%	0.65%	0.62%	0.08%p
	37	덴마크	68,140	83,041	99,203	1,062	493	2,078	1.56%	0.59%	2.09%	0.54%p
	38	스페인	258,311	293,599	358,433	3,032	2,329	2,074	1.17%	0.79%	0.58%	△0.60%p
	39	그리스	52,810	67,192	63,437	2,144	3,456	1,996	4.06%	5.14%	3.15%	△0.91%p
	40	오스트리아	113,353	136,333	172,427	857	718	1,027	0.76%	0.53%	0.60%	△0.16%p
	41	스웨덴	100,431	120,099	162,418	934	1,041	903	0.93%	0.87%	0.56%	△0.37%p
	42	핀란드	50,568	60,830	76,562	539	706	238	1.07%	1.16%	0.31%	△0.76%p
	43	스위스	111,777	155,995	203,154	489	382	679	0.44%	0.24%	0.33%	△0.10%p
	44	폴란드	89,587	149,718	219,883	761	3,660	3,389	0.85%	2.44%	1.54%	0.69%p
	45	체코	68,245	105,255	152,259	562	1,405	2,119	0.82%	1.33%	1.39%	0.57%p
	46	헝가리	60,249	77,272	104,908	903	2,029	1,204	1.50%	2.63%	1.15%	△0.35%p
	47	루마니아	32,664	54,344	77,735	357	502	620	1.09%	0.92%	0.80%	△0.30%p
	소계		3,585,867	4,497,992	5,769,074	39,193	44,377	48,029	1.09%	0.99%	0.83%	△0.26%p
CIS	48	러시아	75,569	170,827	285,982	2,026	4,868	9,024	2.68%	2.85%	3.16%	0.47%p
	49	카자흐스탄	12,773	28,408	26,904	247	373	1,076	1.93%	1.31%	4.00%	2.07%p
	50	우크라이나	28,997	45,423	54,382	326	568	478	1.12%	1.25%	0.88%	△0.25%p
	소계		117,339	244,658	367,268	2,599	5,809	10,578	2.21%	2.37%	2.88%	0.67%p
합계			8,195,386	10,753,223	15,908,799	250,379	325,066	531,993	3.06%	3.02%	3.34%	0.29%p

* 자료 : 각국 통계청 등 수입통계 발표기관, Global Trade Atlas, TradeMap

3. 품목별 분석

조사대상 50개국 시장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가 큰 20개 품목(HS Code 4단위)을 선정하고 현지국의 해당품목 총 수입에서 한국 상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14년 기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한국 상품은 모두 80개

○ 1위 품목 수는 '12년 61개, '13년 70개, '14년 80개로 매년 증가 추세

– 국가별로는 일본과 인도에서 가장 많은 각 9개의 품목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터키, 이란, 카자흐스탄에서는 각 8개의 품목이 1위 기록

– 1위 품목이 없는 국가는 스위스, 핀란드 등 모두 9개이며, 이 중에서 7개가 유럽 국가로 조사됨

– 또한 지역별로는 아시아·대양주 국가들이 평균 4.8개의 1위 품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 영국 등 17개 유럽 국가에서는 1위를 차지한 품목 수가 평균 1.4개 불과

○ 품목에 있어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품목은 스티렌중합체(3903)로 모두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

– 그 뒤를 이어 폴리카르복시산(2917)이 8개국에서, 프로필렌중합체(3902) 및 수송용 선박(8901)이 7개국에서 1위를 차지

– 한편, 자동차의 경우는 칠레, 페루, 에콰도르, 이집트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선박은 인도, 러시아, 독일 등 모두 7개국에서 1위를 차지

< '14년 국별 한국산 수입 점유율 1위 품목>

(단위 : 개)

	국가명	1위 품목수	세부 품목명 (HS Code 4단위)
1	일본	9	석유(2710), 은(7106), 철강판(7208, 7209, 7210), 주형틀(8480), 스테인리스강철판(7219), 플라스틱판(3920), 프로필렌중합체(3902)
2	인도	9	석유(2710), 자동차부품(8708), 폴리카르복시산(2917), 철강판(7208, 7209, 7210), 합성고무(4002), 선박(8901), 스티렌중합체(3903)
3	터키	8	TV수상기 및 부품(8528, 8529), 스테인리스강철판(7219), 폴리카르복시산(2917), 스티렌중합체(3903), 철강판(7210), 주형틀(8480), 액정디바이스(9013)
4	이란	8	TV수상기(8528), 냉장고(8418), 착색제(3204), 폴리아세탈(3907), 도포지(4810), 화학중합체(3901,3902,3903)
5	카자흐스탄	8	차체(8707), 자동차부품(8708), 티비송신기부품(8529), 화학중합체(3901,3902), 보일러(8407), 담배(2402), 전시용기구(9023)

6	필리핀	7	석유(2710), 축전기(8532), 메리야스편물(6002), 구리바(7407), 동합금(7403), 신문용지(4801), 벤젠/나프탈렌(3817)
7	인도네시아	6	합성고무(4002), 메리야스편물(6002, 6006), 스티렌중합체(3903), 아연(7901), 납(7801)
8	중국	5	액정디바이스(9013), 순환탄화수소(2902), 석유(2710), 비순환탄화수소(2901), 프로필렌(3902)
9	뉴질랜드	5	구리바(7407), 프로필렌중합체(3902), 철강판(7210), 열교환기(8419), 스티렌중합체(3903)
10	스리랑카	5	합성고무(4002), 신문용지(4801), 종이(4821), 질소관능화합물(2929), 철강제 강시판(7301)
11	브라질	5	전자집적회로(8542), 자동차부품(8708), 보일러(8407), 스티렌중합체(3903), 철강구조물(7308)
12	칠레	5	승용차(8703), 시멘트(2523), 축전지(8507), 스티렌중합체(3903), 구리제품(7419)
13	이집트	5	승용차(8703), 폴리카르복시산(2917), 화학중합체(3903,3906), 액정디바이스(9013)
14	알제리	5	변압기(8504), 절연전선(8544), 전기회로접속기기(8535), 증기보일러(8402), 보일러부품(8404)
15	태국	4	스테인리스강철판(7219), 열교환기(8419), 납(7801), 스티렌중합체(3903)
16	말레이시아	4	합성고무(4002), 도포처리된 화학화합물(3818), 니트릴화합물(2926), 산화금속산염(2841)
17	페루	4	승용차(8703), 시멘트(2523), 폴리카르복시산(2917), 철 형강(7216)
18	에콰도르	4	승용차(8703), 수송차량(8702), 폴리카르복시산(2917), 전동기부분품(8503)
19	과테말라	4	착색제(3204), 세폭직물(5806), 섬유레이블(5807), 세척기(8451)
20	케냐	4	폴리카르복시산(2917), 아연(7901), 질소관능화합물(2929), 군용무기(9301)
21	대만	3	순환탄화수소(2902), 콜타르 중류물(2707), 수소 등 기타 비금속원소(2804)
22	호주	3	산업용필터(8421), 열교환기(8419), 동파이프(7411)
23	콜롬비아	3	기타선박(8906), 벤젠/나프탈렌(3817), 폭탄(9306)
24	폴란드	3	티비송신기부품(8529), 액정디바이스(9013), 축전지(8507)
25	그리스	3	선박(8901), 폴리카르복시산(2917), 축전지(8507)
26	루마니아	3	철강판(7208), 페로얼로이(7202), 폴리카르복시산(2917)
27	러시아	3	선박(8901), 조명기기(8512), 스티렌중합체(3903)
28	홍콩	2	은(7106), 프로필렌중합체(3902)
29	이스라엘	2	프로필렌중합체(3902), 커피 차 농축물(2101)
30	독일	2	선박(8901), 합성스테이플섬유(5503)
31	영국	2	폐전지(8548), 금속가공용선반(8458)
32	네덜란드	2	공기조절기(8415), 철강연선(7312)
33	이탈리아	2	선박(8901), 금속가공용선반(8458)
34	벨기에	2	합성스테이플섬유(5503), 철강연선(7312)
35	헝가리	2	주형틀(8480), 타이어코드직물(5902)
36	미국	1	철강관(7306)
37	아르헨티나	1	선박(8901)
38	프랑스	1	메리야스편물(6004)
39	덴마크	1	선박(8901)
40	우크라이나	1	전자집적회로(8542)
41	싱가포르	-	-
42	멕시코	-	-
43	캐나다	-	-
44	남아공	-	-
45	스페인	-	-
46	체코	-	-
47	오스트리아	-	-
48	스웨덴	-	-
49	핀란드	-	-
50	스위스	-	-
합계		156	

□ '14년 현지 수입시장에서 상위 10위권 내에 드는 한국 상품은 모두 119개

○ 승용차(8703)가 38개국에서 1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상품 중 가장 수출시장 저변이 넓은 것으로 분석(1위 국가는 총 4개국)

– 무선통신기기는 32개국(1위 국가 없음), 자동차 부품은 30개국(1위 국가 3개국), 석유는 27개국(1위 국가는 4개국)에서 10위권 내에 포함됨

< 주요 수입시장의 상위 10위권 한국 상품 분포현황 >

(단위 : 개국)

	HS코드 (4단위)	상품명	점유율 10위내 포함 국가 수	점유율 1위 국가 수
1	8703	승용차	38	4
2	8517	무선통신기기	32	-
3	8708	자동차부품	30	3
4	2710	석유	27	4
5	8542	전자집적회로 및 반도체	25	-
6	7210	철제 평판압연제품 (클래드,도금)	20	4
7	4011	고무 공기타이어	17	-
8	3907	폴리아세탈수지, 폴리에테르, 에폭시수지	15	-
9	8429	불도저	14	-
10	8529	티비 송신기, 수신기 부품	13	4
11	3903	스티렌 중합체	12	10
12	3901	에틸렌중합체	11	-
13	8528	모니터, 프로젝터 및 티비 수신용기기	9	-
14	2917	폴리카르복시산	9	8
15	7208	철제 평판압연제품(열간압연)	7	3
16	8473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부품	7	-
17	8901	사람, 화물 수송용 선박	7	7
18	8704	수송용 트럭	7	-
19	3902	프로필렌, 올레핀중합체	6	7
20	8507	축전지	6	3
21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6	-
22	8471	자동데이터처리기계, 광학판독기	5	-
23	4002	합성고무	5	4
24	7209	철제 평판압연제품(냉간압연)	5	-
25	9013	액정디바이스	5	4
26	8418	냉장고, 냉동고	4	-
27	7106	은	4	-
28	7308	철강구조물	4	-
29	8407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4	-
30	8419	열교환기	4	3
31	6006	기타 메리야스 편물	4	-

* 주: 조사대상 50개국 수입시장에서 수입액 기준 10위권 내 품목만 집계

II KOTRA 해외무역관이 본 한국 상품 점유율 전망

세계 주요 수입시장 50개국에 주재하는 KOTRA 해외무역관의 수입시장 점유율에 관련한 의견을 △한국 상품 점유율 상승/하락전망 △경쟁력 강화/약화 예상 품목 △현지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국가 순으로 정리함

1. 주요 수입시장별 점유율 전망

○ 조사대상 50개국 중 수입시장에서 한국 상품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곳은 27개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곳은 11개국으로 나타났으며, 현상 유지할 것이라 응답한 곳은 12개국으로 집계됨

< 지역별 한국 상품 점유율 증감여부 전망 >

(단위 : 개국)

구분	아시아	북미·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유럽	CIS	총계
상승(↑)	8	6	3	8	2	27
유지(-)	3	3	1	5	-	12
하락(↓)	2	1	3	4	1	11
총계	13	10	7	17	3	50

○ 권역별 수입시장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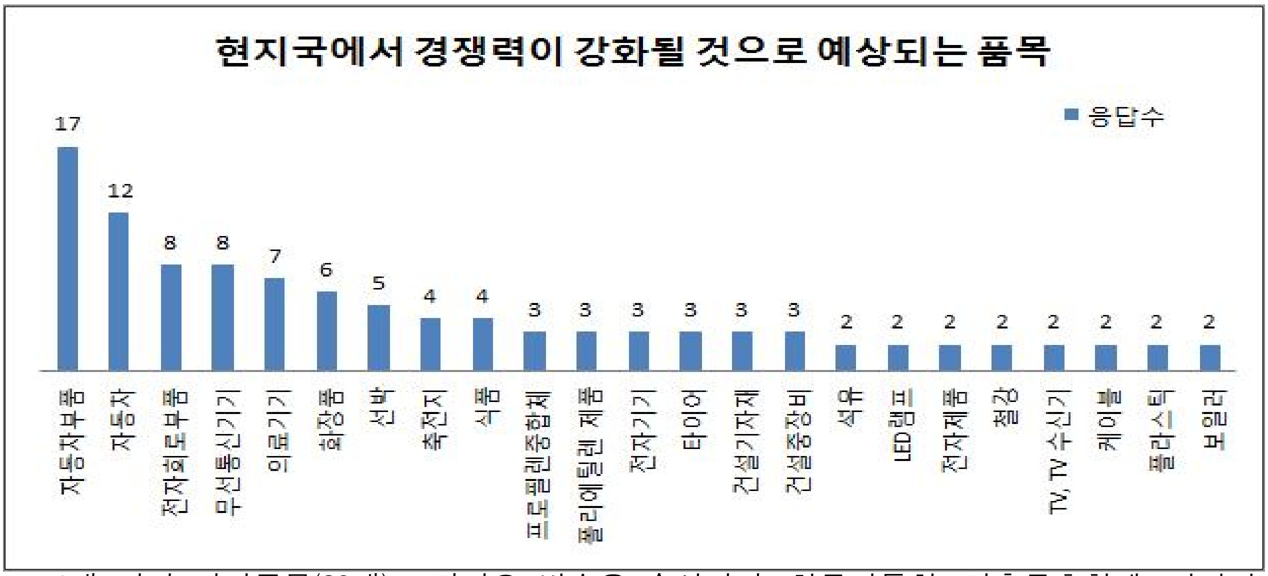
아시아·대양주 (13)	전망	(응답수) : 상승(8), 유지(3), 하락(2)
	상승 요인	· 한-중, 한-호, 한-뉴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 · 신정부의 親 기업 정책 기조에 따른 경제 성장 가속 · 현지 바이어들의 한국 제품 선호도 증가
	하락 요인	· 엔저에 따른 한국 상품 현지 가격경쟁력 약화 · 아시아·대양주 현지 내수 시장 위축 · 철강 등 주요 수출 분야에서 경쟁 심화
	경쟁국	중국, 일본
북미·중남미 (10)	전망	(응답수) : 상승(6), 유지(3), 하락(1)
	상승 요인	·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부작용이 나타나 보호주의 완화 예상 ·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전기 가전 제품 현지 생산시설 투자 증가세 · 추진 중인 중남미 FTA 통상협상 체결 후 관세인하 효과 기대
	하락 요인	· 국제유가 하락, 경기침체 등으로 산업재, 소비재 수입 부진 · 해외 기술을 도입하여 조립 또는 현지 생산을 시행하는 기업 증가 추세, A/S 또는 제품 최적화 요인으로 현지 생산 장려 · 미국, 유럽산만을 최고급 품질로 평가하고 있는 시장으로 우리 제품과 중국산과의 큰 차이를 인지 못함
	경쟁국	중국, 일본, 대만

중동 · 아프리카 (7)	전망	(응답수) : 상승(3), 유지(1), 하락(3)
	상승 요인	· 한-터키 FTA 발효(13.5.1)로 관세 인하 효과 진전 · 한국은 대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기술력, 품질경쟁력에서 선진국 수준이라는 인식, 브랜드 이미지 높음
	하락 요인	· 이란 경제제재 해제 시 유럽, 중국 등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저유가 추세 장기화에 따른 현지국의 수입규제 강화 여파 · 현지국 프로젝트 발주 축소 계획 · 이스라엘은 중국, 인도와의 FTA 협정 체결을 추진 중
	경쟁국	중국, 일본, EU
유럽 (17)	전망	(응답수) : 상승(8), 유지(5), 하락(4)
	상승 요인	· 한국 주력 수출상품시장 수요 회복 + 한-EU FTA 효과 편승 한국제품 인지도, 선호도 상승 ·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최근 주요 수입품이 산업재에서 일반 소비재로 확대 · 한-EU FTA 4주년 수입관세 폐지, 수입업자들 FTA 혜택 파악 · EU기금 활용 프로젝트 발주 활발, 한국기업 인지도 높음
	하락 요인	· 현지 수출부진으로 내수화 경향이 강해질 전망 ·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저가 제품 국가로 수입을 전환 · 유로화 약세, 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심화 가능성 · 자동차의 경우 엔저 직격탄, 소비재의 경우 중국산에 밀려 고전 예상 · 유로 대비 원화 강세현상 지속으로 큰 폭의 수출 증가 기대 어려움
	경쟁국	중국, 일본, EU
CIS (3)	전망	(응답수) : 상승(2), 유지(-), 하락(1)
	상승 요인	· CIS 지역의 질적 상품 선호도 확대(유럽화) · 한국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차체 및 차량 부품 분야 꾸준히 상승 · 한국 중견중소기업 진출 확대로 수출상품 다변화(내수기업 진출 확대)
	하락 요인	·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제품과 러시아 주도의 EEU 가입국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 · 루블화 급락으로 인해 바이어들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 시장 전반에서 러시아산이나 중국산 제품의 인기가 증가 · 러시아 정부는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를 확대
	경쟁국	중국, 일본, EU

2. 향후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는 품목

□ 무역관별 3개 품목을 선정, 총 144개 품목의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현지에서 우리제품의 점유율 상승이 가장 많이 예측된 품목은 **자동차 부품**으로 **17개국**에서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11개국), 전자회로부품(8개국), 무선통신기기, 의료기기(7개국) 순으로 조사됨



* 1개 미만 기타품목(39개) :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화물자동차, 건축물혼합제, 아연판, 시멘트류, 열교환기, 합성섬유, 광통신, 불꽃점화식 엔진 등

○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한 **자동차부품(8708)은** 북미·중남미(35.3%), 유럽(35.3%)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점유율 상승 예상 주요인으로는 주요시장 FTA에 따른 관세인하와 인지도 상승, 현지기업의 글로벌 소싱 확대, 한국산 자동차 신차 및 애프터마켓용 부품 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동유럽의 경우, 완성차 OEM과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부품 업체 진출로 인한 우리수출 확대, 최근 EU 자동차 시장 공략 전초기지로 자동차부품 기업 M&A 증가 등이 점유율 상승 요인으로 분석됨

○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8703)**는 북미·중남미 시장(41.6%)에서 점유율 확대가 예상됨

– 중남미 시장의 수입규제와 내수 가격 인상으로 현대 및 기아 자동차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무관세 교역이 가능한(일부 품목제외)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회원국 브라질에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이 증설되어 중·소형차 공급 증가가 예상(아르헨티나)

○ **전자회로부품(8542)**은 유럽, 아시아·대양주 8개국에서 전망이 밝은 것으로 조사됨

– 모바일 기기·노트북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전망(네덜란드, 대만)

–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 반도체는 중국 등 후발주자와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현지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영국)

○ 그 외 **의료기기(7개국)**, 화장품(6), 선박(5), 축전지(4), 식품(4)의 순으로 조사됨

– **의료기기**의 경우, GE, 지멘스, 필립스 등의 고가품목과 중국산 저가품목이 주로 발달된 현지 시장에서 품질 좋은 중가대 한국산 의료기기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짐(카자스흐탄)

– **화장품**은 최근 미샤, 페이스샵 등 한국 브랜드가 현지에 매장을 개설하는 등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위기로 유럽산 고가 제품 대신 중고가대의 한국 상품의 인기가 증가(러시아)

– **축전지**는 전기 자동차 수요 확대와 품질 인지도 상승으로 전망이 밝음(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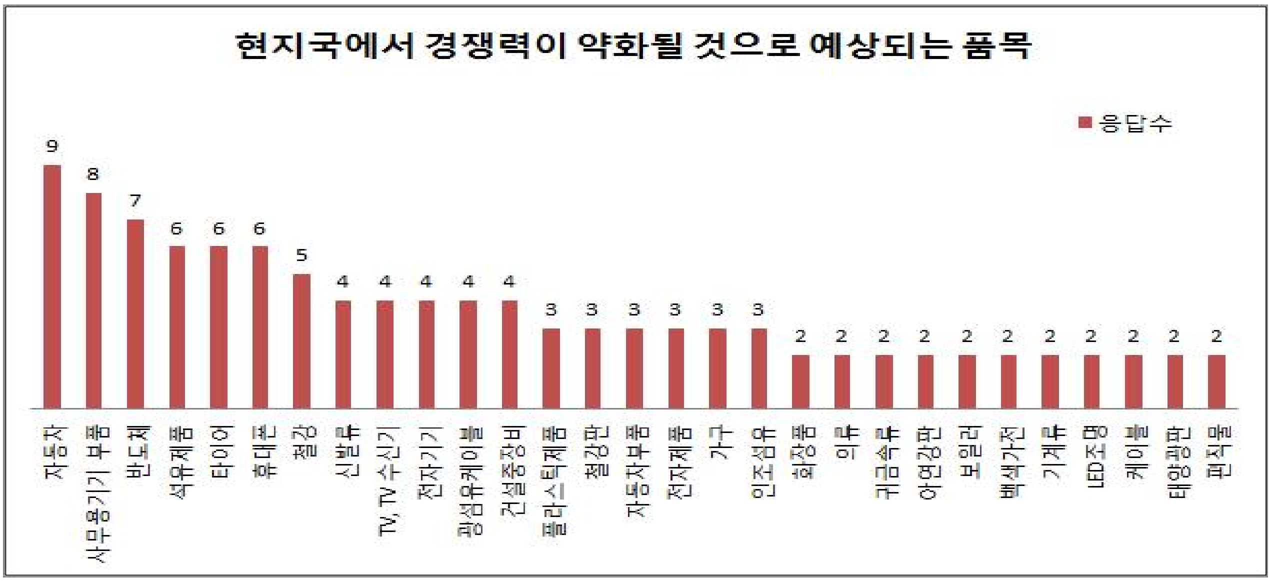
< 한국산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는 제품의 지역별 분포(3개 이상 응답 품목) **>**

연번	HS 코드	권역	CIS (총 10개 응답)	북미·중남미 (총 26개 응답)	아시아·대양주 (총 39개 응답)	유럽 (총 52개 응답)	중동·아프리카 (총 19개 응답)	합계
1	8708	자동차부품	1	6	2	6	2	17
2	8703	자동차	2	5	2	2	1	12
3	8542	전자회로부품	-	1	3	4	-	8
4	8517	무선통신기기	-	2	2	2	2	8
5	9018	의료기기	1	2	-	4	-	7
6	3304	화장품	2	1	2	1	-	6
7	8901	선박	-	1	2	2	-	5
8	8507	축전지	-	-	-	4	-	4
9	1902	식품	-	-	2	2	-	4
10	3902	프로필렌중합체	1	-	1	-	1	3
11	3901	폴리에틸렌 제품	-	1	-	2	-	3
12	8529	전자기기	-	2	1	-	-	3
13	4011	타이어	-	1	-	2	-	3
14	7215	건설기자재	-	-	2	-	1	3
15	8429	건설중장비	-	1	-	-	2	3

3. 향후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

□ 무역관별 3개 품목을 선정, 총 135개 품목의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현지에서 우리제품의 점유율 하락이 가장 많이 예상된 품목은 **자동차**로 **9개국**에서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부품(8개국), 반도체(7개국), 석유제품, 타이어, 휴대폰(6개국) 순으로 조사됨



* 1개 미만 기타 품목(30개) : 의료기기, 특수의류, 유니폼, 액정디바이스, 귀금속류, 고압전선, 의류 및 신발류, 수입가구류, 합성고무 등

○ **자동차(8703)**의 점유율 하락을 예상한 9개 국가 중 대부분은 유럽국가로 나타남

– 주된 원인으로는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한국기업의 직수출 감소, 동구·중동 및 EU 역내 생산기지로부터 수입 증가, 유로화 약세 및 엔저로 한국산 가격 경쟁력 하락 등임(스웨덴 등)

– 또한 EURO6 및 EURO7* 등 유럽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소형 및 친환경차 맞춤형 생산 체제 개선 시급(프랑스)

* EURO6, EURO7 :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만든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 두 번째로 점유율 하락이 클 것으로 예상된 품목은 **컴퓨터 등 사무용 기기(8473)**로 대부분 선진국 시장에서 응답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대체재의 간접 부상에 따라 노트북을 비롯한 데스크톱의 수요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 대만 등 중저가 브랜드와의 경쟁 심화로 한국산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영국, 체코)

○ 휴대폰(8517)은 유럽 및 중남미, 중국 등에서 하락이 예상됨
–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화웨이 등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질 면에서도 한국산을 뒤지지 않아 향후 한국산 휴대폰 수입 점유율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스페인, 영국, 프랑스)
– 중국의 산업구조가 단순 가공·조립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향후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중국)

○ 그 밖에 철강(북미·중남미), 신발류(CIS), 광섬유케이블(아시아·대양주) 등 점유율 하락이 예상됨
– 철강의 경우 현지 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수입 사전 허가제나 반덤핑 등 비관세 장벽의 규제가 매우 높은 분야임(아르헨티나)
– 신발류는 직물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자체기술을 수출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이며, 유럽산 제품 또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한국산 시장점유율 감소가 불가피함(우크라이나, 러시아)
– 그 밖에 TV·TV 수신기, 광섬유 케이블 등 전자기기·통신부품들은 대부분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여 우리제품의 직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며, 저가 중국 브랜드의 품질 개선 또한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호주, 그리스 등)

< 한국산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는 제품의 지역별 분포(3개 이상 응답 품목) >

연번	HS 코드	권역	CIS (총 10개 응답)	북미·중남미 (총 26개 응답)	아시아·대양주 (총 39개 응답)	유럽 (총 52개 응답)	중동·아프리카 (총 19개 응답)	합계
1	8703	자동차	-	1	1	5	2	9
2	8471	사무용기기 부품	-	1	1	5	1	8
3	8542	반도체	-	1	3	3	-	7
4	2710	석유제품	-	3	-	2	1	6
5	4011	타이어	-	-	3	2	1	6
6	8517	휴대폰	-	2	1	3	-	6
7	7219	철강	1	3	1	-	-	5
8	6401	신발류	3	-	-	1	-	4
9	8528	TV, TV 수신기	-	1	1	2	-	4
10	8529	전자기기	-	-	1	2	1	4
11	8544	광섬유케이블	-	-	2	1	1	4
12	8429	건설중장비	-	-	1	1	1	4
13	3907	플라스틱제품	1	-	1	-	1	3
14	7208	철강판	-	1	-	2	-	3
15	8708	자동차부품	-	2	1	-	-	3
16	9013	전자제품	-	1	2	-	-	3
17	9401	가구	-	2	-	2	-	3
18	5503	인조섬유	-	2	1	-	-	3

4. 지역별 경쟁국 전망

□ 50개 주요 수출시장에서 향후 한국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40개국), 일본(25개국), EU(13개국), 대만(6개국)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 경쟁국 현황 >

(단위 : 개국)

경쟁시장 \ 경쟁국	중국	일본	EU	대만	인도	터키	멕시코	브라질	미국
아시아·대양주	10	9	-	5	2	-	-	-	-
북미·중남미	6	4	3 (독일)	-	-	-	2	2	-
중동·아프리카	5	2	3 (영국)	-	2	1	-	-	1
유럽	16	8	5 (독일)	1	-	2	-	-	-
CIS	3	2	2 (독일)	-	-	-	-	-	-
합계	40	25	13	6	4	3	2	2	1

≪중국≫

○ (경쟁품목)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외한 전기, 전자, 기계부품, 선박, 철강, 휴대폰 등 거의 모든 분야

○ (경쟁동향) 한국과 중국은 경공업, 전자제품 등 수출품의 구조가 유사하고, 기존에 저가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기술 및 품질을 개선하면서 한국 상품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특히, 선박 등 주력 수출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고, 선진 외국 브랜드를 인수하는 브랜드 확보전략을 취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경쟁력이 급속히 증대될 전망

≪일본≫

○ (경쟁품목) 자동차,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공구, 연선·로프·케이블, 가전(특히 대형 가전),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발광 다이오드, 텔레비전 카메라 및 디지털 카메라, 일부 철강제품 등 제조업 분야

○ (경쟁요인) 한국과의 경쟁품목이 많지만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엔저 장기화에 따른 가격경쟁력까지 확보되어 일본 기업과의 경쟁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

≪EU≫

○ (경쟁품목) 기계제품,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품목

○ (경쟁 요인) EU는 첨단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이 생산한 고품질의 우수한 브랜드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주문·배송과 A/S 등이 용이한 EU 역내교역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산 진입이 상대적으로 불리함. 역내교역은 동일 문화권의 기술 및 시장 인지도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그 밖에도 유로화 약세 등의 요인이 지속 작용할 전망

≪기타≫

○ 그 밖에도 한국 상품이 대만과는 주로 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 경합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계 및 부품조달 분야에서 경쟁이 많을 전망

○ 인도와는 스리랑카, 이란, 말레이시아 등 4개국에서 경쟁이 예상되며, 철강 및 기계류 등이 경쟁 품목으로 예상됨

○ 또한 멕시코·브라질과는 북미와 중남미 시장에서, 터키와는 유럽에서 경쟁할 것으로 조사됨

III 시사점

□ 선진국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 수립 시급

○ 과거 10년 간 우리 수출은 신흥시장에서는 점유율을 확대하였지만 선진국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는 점유율이 하락

– 점유율 하락은 시장에서 경쟁국에 밀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은 상품 및 기업의 경쟁력 하락이 주원인으로 작용

– 따라서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상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선진국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선진국 시장인 유럽과 미국은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5.6%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수출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매우 중요

< '14년 지역별 우리 수출액 비중과 현지(50개국)의 한국산 점유율 >

구분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기타
수출액(백만 달러)	323,701	75,202	71,646	35,898	34,786	21,444	9,901	86
수출비중(%)	56.5	13.1	12.5	6.3	6.1	3.7	1.7	0.02
한국산 점유율(%)	6.50	0.83	2.71	3.25	3.42	4.63	1.56	-

* 자료 : 무역협회(수출액·수출비중), 각국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TradeMap(한국산 점유율)

□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수출 지원 강화 필요

○ 선진국 시장에서 통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과 수출 지원 강화 필요

–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소비재, 혁신상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 필요

< 현지국 수입점유율동향 분석 목적 및 선정기준 >

· **조사목적**
- 주요국의 수입 대상국별, 품목별 수입점유율 동향 분석을 통한 우리 수출경쟁력 진단
- 국가별/품목별 수입점유율 변동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 제공

· **조사대상국** : 무역관 미소재국(10개국) 및 '14년 수입통계 부재국(18개국)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50개국('14년 수출액 기준)

권역	유럽	아시아·대양주	북미·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동유럽·CIS
대상국 (순위)	독일(18) 영국(21) 네덜란드(22) 폴란드(26) 이탈리아(27) 프랑스(30) 벨기에(31) 덴마크(33) 스페인(35) 체코(38) 헝가리(45) 그리스(54) 오스트리아(56) 스웨덴(60) 루마니아(66) 핀란드(73) 스위스(79)	중국(1) 일본(3) 홍콩(4) 싱가폴(5) 대만(7) 인도(8) 인도네시아(9) 호주(11) 필리핀(13) 태국(16) 말레이시아(17) 뉴질랜드(41) 스리랑카(78)	미국(2) 멕시코(10) 브라질(14) 캐나다(23) 칠레(34) 콜롬비아(44) 페루(48) 에콰도르(61) 아르헨티나(64) 과테말라(77)	터키(20) 이란(25) 이집트(32) 남아공(46) 알제리(47) 이스라엘(52) 케냐(72)	러시아(12) 카자흐스탄(57) 우크라이나(74)
국가수	17	13	10	7	3
제외국 (순위)	슬로바키아(24) 노르웨이(42) 슬로베니아(43) 몰타(55) 룩셈부르크(67) 포르투갈(68) 아일랜드(69)	베트남(6) 방글라데시(51) 미얀마(62) 파키스탄(63) 캄보디아(65) 몽골(71)	-	사우디(15) UAE(19) 라이베리아(28) 쿠웨이트(37) 앙골라(39) 이라크(40) 요르단(49) 나이지리아(50) 오만(53) 카타르(58) 리비아(59) 시리아(70) 탄자니아(75) 예멘(76)	우즈베키스탄(36)
국가수	7	6	-	14	1

· **조사내용**

① 현지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04년, '09년, '12년, '13년, '14년)
② 현지국의 주요 수입 한국제품 업종별(HS Code 2단위) 동향('04년, '09년, '14년)
③ 현지국의 수입대상국 상위 10개국 현황('04년, '09년, '12년, '13년, '14년)
④ 현지국의 주요 수입 한국제품 품목별(HS Code 4단위) 동향('12년, '13년, '14년)

· **조사방법** : Global Trade Atlas, Trade Map, 현지국 통계청을 통한 수입통계 분석 및 현지국 소재 무역관 의견 종합

작 성 자

◈ 50개 해외무역관 조사담당자
◈ 통상전략팀 이소정 사원,
이승형 사원, 장수영 팀장

Global Market Report 15-031

시장 점유율 분석을 통한 한국 수출 시장 재조명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8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